

## BTS 표지 실린 '타임' 출간 전 '예약 판매 끝!'

인기 보이그룹 '방탄소년단' (BTS)이 표지모델로 실린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아시아판 표지모델이 됐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10일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오는 22일 발간하는 최신호 표지에 방탄소년단의 사진이 실린다는 사실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BTS는 어떻게 세계를 접수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표지에는 정장을 입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모습과 '차세대 리더(Next Generation Leaders)'라는 제목이 적혔다.

타임은 기사를 통해 "비틀스, 원디렉션과 같은 '심쿵' (heartthrob)한 외모, 컷가에 맴도는 노래로, 뉴키즈 온더블록, 엑스크와 같은 춤으로 BTS는 마니아들을 끌어모으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이 밴드가 됐다."고 전했다.

방탄소년단이 타임지 표지 모델로 등장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한국에서 판매 예정인 '타임' 아시아판은 출간 전 예약판매분이 순식간에 매진되기도 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한국 그룹 최초로 미국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AMAs)'에서 수상했다.

방탄소년단은 9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2018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인기 소셜 아티스트(Favorite Social Artist)' 상을 받았다. 방탄소년단이 수상한 '인기 소셜 아티스트' 부문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홈페이지와 트위터 투표를 통해 수상자가 결정됐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가장 영향력 있고, 상징적인 뮤지션을 선정하는 시상식으로 빌보드 뮤직 어워즈, 그래미 어워즈와 함께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힌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5월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2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 이어 그래미 어워즈까지 휩쓸며 미국 대중음악시상식 '그랜드슬램'을 달성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 LA 한인타운 소재 드라마 제작된다



LA 한인타운의 한인 가족 얘기를 소재로 한 블랙코미디 'K타운' 가 제작된다.

5일 할리우드리포터에 따르면 미국 유료채널 HBO는 LA한인타운에 사는 강씨 가족의 얘기를 담은 드라마 'K타운'을 제작한다. 한인 제이슨 김(왼쪽)이 프로듀서로, 한인 배우이자 작가인 그레타 리(오른쪽)가 주연인 강씨의 딸 강유미 역을 맡는다. 제이슨은 뮤지컬 'KPOP'의 작가로도 이미 성공을 거둔 바 있다.

드라마는 강유미가 자신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사실에 혼란을 겪으며 자칭 '브렌트우드 바비'라고 떠돌고 다니지만, 점차 정체성을 되찾고 한국계 미국 여성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담을 예정이다.

할리우드리포터는 "얼마전 개봉한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스'가 아시안 캐스팅으로 관심을 끌며 2억 달러 넘는 흥행을 기록한 것을 계기로 할리우드에서 아시아계를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 제작 붐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한인타운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제작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너무나 기대된다.", "코리아타운의 한국인과 멕시코인 비율은 거의 똑같다. 만약 HBO가 'KTown'에 성공한다면 미국 아시아계-라틴계의 관계를 조명하는 첫 TV 드라마가 될 거다. 아시아계와 라틴계를 주제로 한 이런 드라마는 옛날에 만들어졌어야 한다.", "나 너무나 흥분했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샘 스미스, 산낙지 먹방하며 "정말 맛있다"



지난 9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첫 내한 공연을 펼친 샘 스미스의 행보가 관심을 모았다.

'서울'을 외치며 무대에 등장한 스미스는 그는 "오늘 내 꿈이 이뤄졌다. 한국에 오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며 "내 음악이 가끔은 우울하고 슬프지만, 오늘 밤은 당신들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부르는 노래를 전부 따라 불러달라."고 요청하며 관객 반응을 유도하는 등 계속 함께 호흡하며 공연을 이어갔다.

공연장을 가득 채운 2만여 명의 관객은 '떼창'으로 화답했다.

한편 스미스는 공연 이틀 전 한국에 도착해 서울 곳곳을 방문하며 화제가 됐다.

도착 첫날인 7일에는 홍대 인근에서 본인 앨범 재킷 디자인을 문신으로 새긴 뒤 인스타그램에 공개했고 둘째 날인 8일에는 경복궁을 방문하고 광장시장에서 산낙지를 먹는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젓가락질이 서툴러 손으로 산낙지를 먹은 그는 "이거 움직인다. 그런데 맛있다. 정말 맛있다."고 감탄했다. 그는 또 "오늘은 정말 멋진 날이다. (산낙지는) 진심으로 괜찮았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식탁에는 떡볶이, 만두, 순대와 광장시장의 명물인 꼬마김밥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다.

샘 스미스는 2014년 데뷔 앨범 '인 더 론리 아워' (In The Lonely Hour)로 대중과 평론가들 주목을 한몸에 받으며 세계적인 팝스타로 도약했다. 이후 2015년 그래미 어워즈에서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최우수 신인 등 4개 부문을 휩쓸었다.

#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한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부활교회  
St. Anselm's Episcopal Church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Blvd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요일&목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 좋은신문 일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 0명**

제출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심사 후 면접 (개인별 통보)

E-mail: info@townnewsusa.com

11501 Brookhurst St. #202, Garden Grove, CA 92840